



# 천원택시 타고 '목야청청' 버스킹 즐기러 가요

강진 전남인재개발원 교육생들 저녁나들이 부쩍 늘어  
"왕복차비 4만여원 아껴" 2022년 이후 6076건 이용  
강진읍 상권 살아나고 택시 종사자들 수입도 증가

김소연(왼쪽) 주무관(해남군청)과  
김원상 주무관(고흥군청)이 강진군  
에서 발행한 '천원택시' 쿠폰을 들  
어보이고 있다.

"천원택시 타고 목야청청 놀러갑니다."

하루 교육이 모두 끝난 오후 5시 전라남도인재개발원 현관 앞에 삼삼오오 모인 교육생들이 밝은 모습으로 자랑하듯 말한다. 일과를 마친 이들은 강진읍내로 저녁 시간을 보내러 나선 길이다.

이들의 이동 수단은 일명 '천원 택시', 천원만 내면 10km 거리에 있는 강진읍내까지 프리패스다. 콜을 하고 현관 앞에서 기다리면 택시가 온다. 보통 10분 안팎이다.

해남군청 소속 이곳 인재개발원에서 제 4기 신규자 기본 교육을 이수 중인 김소연(행정9급) 주무관은 "천원 택시 아니면 나갈 엄두가 안 난다"며 "안 그래도 높은 물가에 나가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와도 비용이 꽤 발생하지만, 천원 택시를 이용하면 거의 왕복 4만원의 차비를 아끼는 셈이라 나가는 발걸음도 가볍고, 한번 나갈 것도 두세 번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오늘 동행한 이들은 김 주무관과 함께 교육을 받는 전남도 산하 시군의 신규자들로 이곳에 오기 전까지 모르던 사이였지만 교육을 받으며 친해졌다.



전남인재개발원 신규자 교육생들이 목야청청 행사장에서 즐거운 저녁을 보내고 있다.

오늘의 행선지는 강진읍내 말반천이 많이 나오고 가성비 높기로 유명한 식당이다. 나간 길에 저녁도 먹고 강진군에서 요즘 매주 목요일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거리에 테이블을 내놓고 정겨운 버스킹을 선보이는 일명 '목야청청'도 둘러보기로 했다.

강진군이 운영하는 천원 택시는 도암면에 자리한 전남인재개발원과 함께 성전면에 위치한 전남교통연수원 교육생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나아가 강진읍내권의 상권 활성화를 돕기 위해 지난 2022년 12월 인재개발원에서 시작했다. 2023년 8월부터는 교통연수원까지 확장해 운영 중이다. 교통비 천원을 제외한 비용은 군에서 모두 보전해 준다.

전남인재개발원은 1953년, 전남공무원훈련소로 광주시 양림동에 처음 설치된 이후 지난 2015년 강진군 도암면으로 자리를 옮겼다. 생활관을 주로 이용하는 신규자 기본 교육 3주 과정에는 연 1800여 명이 교육한다. 또 50개의 집합 과정에는 7000여 명이, e-러닝 120개 과정에는 3만6000여명이 교육을 거쳐 가는 전남 공직자 교육의 요람이다.

천원 택시는 먼 지역에 교육시설만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어 교육생들에게 읍내까지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읍내 상권에 활력을 주기 위해 도입했다. 천원 택시 운행이후 상기는 물론 택시 종

사자들의 수입도 덩달아 높아졌다.

전남인재개발원이 있는 도암면에서 강진터미널까지는 10km 15분 거리, 하루 평균 4-5팀(16-20명)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왕복으로 운영한다.

인재개발원 교육생들은 생활관이 문을 닫는 10시 전에 도착이 원칙이지만, 통상 택시는 11시까지 운영한다. 천원 택시 이용을 위해 교육생은 교육기간 동안 사용가능한 천원 택시 쿠폰을 발급받아, 요금 지불 시 천원과 함께 기사에게 내면 된다.

천원 택시 이용을 원할 경우, 전남인재개발원 당직실 내 배치된 이용 명단에 내역을 작성해 제출하면 쿠폰을 제공받는다. 천원 택시를 이용한 다음달 첫째 주 내 군 담당 부서에 관련 자료 전달되고, 군은 이용 명단과 영수증을 대조 후 차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다.

천원택시 제도가 시행된 후인 2022년 12월부터 전남인재개발원에서 택시를 이용한 건수는 지난 4월말 기준으로 6076건이고, 교통연수원은 교육이 있었던 2023년 9월과 2024년 1월, 2월, 4월, 6월달 44건을 기록했다.

6시 무렵 인재개발원을 나선 김 주무관 일행들은 오후 8시쯤 강진읍내 '목야청청' 행사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수십개의 테이블이 설치된 읍내 목야청청 행사장에는 이미 빈자리 하나 없이 만석으로, 김 주무관 일행은 어렵게 행사장 끝에 측석에서 테이블 하나를 세팅해 자리 잡았다.

노란색 테이블 위에 먹음직한 자태를 자랑하는 치킨은 들려오는 버스킹 공연의 노랫소리와 함께 깊어 가는 여름밤의 낭만을 선사한다.

김 주무관과 같은 분야에서 교육받고 있는 김원상 주무관(고흥군청, 행정9급)도 "이런 교육 때문에 강진에 처음 왔는데, 불금불파나 마랑놀토 등 정기적인 행사는 물론, 시군별로 크고 작은 행사들이 즐비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강진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목야청청은 지난 5월 30일, 국비 공모사업(2024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을 통해 첫선을 보였으며, 첫날 행사에만 700여명이 찾는 등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낮보다 밤이 더 반가운 계절, 여름. 오늘밤에도 천원택시는 목야청청이 끝나가는 시각, 다시 교육생들을 태우고 도암 전남인재개발원으로 가는 길을 재촉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신규자 교육 중인 공무원들이 일과가 끝나고 삼삼오오 모여 택시를 타고 강진읍내로 향하고 있다.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